

광주시, 자치구 경계조정 난항에 ‘파격 인센티브안’ 마련



광주시가 수년째 교착상태에 빠진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해 파격 인센티브안을 마련해 해당 주민에 '다브콜'을 보낸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2년 만에 재개된 자치구 경계조정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로 난항을 겪자 3000억원에 육박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

북구·광산구, 3000억원대 육박 지원사업 마련 중 재원확보·공약이행 신뢰 관건...정치권 수용 관심

다. 시는 그동안 기관별 건의사항 조사 및 자체 발굴을 통해 경계조정 협력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시설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북구에는 광주의료원 유지, 행정복합센터 조성,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추진 등 16개 사업 2573억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암동에는 보건소 2층사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암1동과 풍향동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문화동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문화센터·도서관·복지관 등을 갖춘 행정복합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석곡동에는 '석곡 119안전센터 신설'과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무등산숲 힐링센터'도 유치할 계획이다.

광산구에는 5개 사업에 35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남2지구 시립도서관 외에 신창동에 시립도서관을 추가 건립하고 신가동에는 '세대통합 복합센터'를 건립해 주민 소통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아교 다목적구장 조성, 근린공원 시설 개선, 도로정비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SOC 개선사업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체 발굴을 통해 3000억원대의 인센티브 초안을 만들었다"면서 "좀 더 세밀하게 막판 지원 사업을 확정짓는 뒤 정치권과 주민을 설득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인센티브의 재원마련과 함께, 과거 전례로 불태 공약 이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강운태 광주시장 시절 북구 일부를 떼어 서구와 동구로 조정을 하면서 10개 정도 인센티브 공약을 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행정불신이 팽배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시경계 조정 기획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북구 6개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계조정안을 최종 확정했지만, 광산구와 북구 주민 및 정치권의 반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은둔형 외톨이', 대졸·20대男 많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역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대 남성, 대졸이상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실패 계기로 6개월~1년미만 은둔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정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뜻하며,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활발한 논

26.6%)가 많았고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이 145명(41.5%) ▲3~4명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56.2%(195명)로 가장 많았다.

은둔생활의 주된 계기는 취업 실패(27.8%)와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26.6%) 등이 많았고 평상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중복 답변)은 스마트폰 사용(53.2%)과 PC·인터넷게임(50.2%), 잠자기(41.8%) 순이었다.

평소 속마음을 털어놓을 대화상대가

96% "희망이 없다" 응답...전국 최초 실태조사 결과 나와

스마트폰(53%), PC·인터넷게임(50%), 잠자기(41%) 활동

의가 이뤄졌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지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0만 세대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1095명 중 유효표본 349명(당사자 237명, 가족 112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은둔형 외톨이 349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226명(64.8%), 여성 123명(35.2%) ▲연령대 별로는 20대(155명, 44.4%)와 30대(93명,

전혀 없다는 응답이 60.8%를 차지했고, 42.9%는 가족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5.8%, PC나 휴대전화 없으면 잠 시도 진정할 수가 없다는 응답은 78.5%, 감정을 걸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다는 응답은 93.2%였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용역조사 공유회'를 개최한다.

기동취재본부



너무 일찍 핀 동백꽃

새벽부터 차분한 빗줄기가 이어진 지난 26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천년고찰 백련사 동백꽃(천연기념물 제151호)이 철모르고 피어난 동백꽃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 가운데 꽃은 날씨가 어우러져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광주·전남 내일부터 강풍 동반 눈...대설특보 가능성도

광주시상청 "추운 날씨 속 눈 내리면서 도로 곳곳 미끄러울 듯"

광주·전남 지역에 오는 28일부터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을 지나서 저기압 영향으로 오는 28일 낮부터 돌풍과 함

께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리겠다. 같은날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며 눈발이 거세지겠다.

눈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지겠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발령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남 해안·섬 지역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됐다.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7~14m의 강풍이 불겠다.

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추운 날씨 속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 미끄러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정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